

맛·멋 그리고 이야기가 담긴 곡성 5가지 새 먹거리 개발

멜론효소쥬스

멜론슬러시·뽕뽕뽕

토란크로켓·심청이김밥

곡성군과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특성화사업단, 광주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진이 곡성의 ‘맛’과 ‘멋’이 담긴 먹거리를 개발했다.

지난 6월부터 곡성의 맛이 살아 있는 신규 먹거리 개발에 나선 이들은 최근 멜론효소쥬스, 멜론슬러시,

뽕뽕뽕(기차모양 불어빵), 토란크로켓, 심청이김밥 등 5종의 신규 먹거리를 선보였다.

이 먹거리들은 곡성에서 재배되고 생산되는 청정 농·임산물을 이용해 맛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곡성의 이야기가 담겨진 스토리텔링형 먹거리가 단연 눈에 띈다.

곡성의 대표 브랜드인 기차 콘셉트와 심청이야기를 담은 뽕뽕뽕과 멜론효소쥬스, 멜론슬러시는 시장 내 불어빵 판매자인 최인석씨가 기

술 이전교육을 받았다.

또 곡성의 대표 특산물인 토란으로 만든 크로켓은 도너츠 판매자인 이준임씨가 최근 교육을 마치고 기술을 이전받았다.

기술이전 교육은 먹거리 재료와 유통과정, 레시피 등 세밀한 정보까지 담아 곡성의 신규 먹거리 5종의 표준화를 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특성화사업단 관계자는 “지난 17일에는 수정원 레시피 정보 등을 가지고 재차 교육을 진행해 상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신규 먹거



광주여대 연구진 등이 새로 개발한 토란크로켓의 기술을 시장 상인에게 이전한후 요리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곡성군 제공>

리가 곡성에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기술이전 교육과 홍보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규 먹거리 개발에 참여한 김지현 광주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곡성에서 재배되고 생산되는 유기농 농·임산물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다보니 곡성의 맛과 멋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영호남 지역발전 손잡다

광양-하동, 행정구역 탈피 교류협력 간담회

광양과 하동 등 영·호남 지자체 단체장과 기관단체장들이 행정구역을 탈피해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병권) 주관으로 최근 경남 하동 한 식당에서 구자명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장, 이성웅 광양시장, 조유행 하동군수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사진>

이번 간담회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광양시·하동군이 비록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상호 협력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간담회는 섬진강변 자전거 도로망 구축 등 ‘매력적인 섬진강 만들기 사업’과 진상~하동을 연결하는 광양만 접근도로 건설 등 지역교류 활성화를 위한 도로사업지원, 남해안 개발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 국토관리청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성웅 광양시장은 “양 지자체가 공생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이 지난해부터 논의되어 오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협력 사업들이 탄력을 받고 실행에 옮겨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4079@

순천정원박람회 주변 45만㎡ 관세 유보

여수세관, 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전시물 통관 용이

여수세관이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주전시장 일대를 보세구역으로 선정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18일 여수세관에 따르면 내년 열리는 정원박람회를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박람회장 주변 45만3056㎡의 공간을 관세를 유보해주는 보세구역으로 설정했다.

또 이 같은 업무 지원을 위해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지원 TF도 발족

했다.

박람회장 공간이 보세구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관세 납부 유보 혜택은 물론 외국에서 반입되는 각종 물품이나 식물 등 전시물의 반출입과 통관 등이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황흥주 여수 세관장은 “정원박람회 조직위의 건의를 수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지원했던 경험을 살려 세

관이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 (Garden of the Earth)을 주제로 순천만 일원 152만㎡에 조성된 박람회장에서 내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간 열린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순천대LINC사업단, 가족회사 확산대회

산·학 밀착 통한 일자리 창출·지역산업 부흥 전력

순천대학교 산학협력 선대대학육성(LINC)사업단(단장 조규진)은 최근 순천대 70주년 기념관에서 지역산업체와 순천대학과의 실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가족회사 확산대회를 개최했다.

산업체 중심의 LINC사업 확산을 모토로 진행된 이번 확산대회는 LINC사업단 가족회사 400여개 가운데 ㈜팩스 등 70개 가족회사 직원들과 교수,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확산대회는 비퍼시 주식회사(대표자 정기선)의 가족회사 우수사례와 순천대 캠퍼스(정보통신 공학

과)·김혜진(물류학과) 학생의 ‘청각 장애인 의사소통 보조 어플리케이션’ 등 학생 우수사례 등이 발표됐다. 또한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마이웨이(My Way)’라는 주제로 삼성전자 김병구 전무의 특강이 마련됐다.

조규진 단장은 “앞으로 산업체에 대학의 눈높이를 맞추는 사업 등을 통해 가족회사와 동반성장하는 산·학 협력발전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산·학 밀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순천대 재학생들의 취업활성화와 지역산업 부흥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여수해경, 여수 연안VTS 개국식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지난 15일 화정면 백리에서 여수 연안VTS(해상교통 관제센터) 개국식을 가졌다. 센터는 선박 위치추적용 레이더와 자동 식별장치(AIS)·초단파대(VHF) 통신망 등을 갖추고 완도 생일면 구도부터 거문도, 백도, 소리도 등 제주도 면적의 2배(387.8km)에 달하는 해역의 선박 안전운항을 관제한다.

<여수해경 제공>

전 북

복분자, 기억력 향상에 최고

식품영양학 심포지엄... 항바이러스·식중독 예방도

고창군 특산품인 복분자가 기억력 향상과 항바이러스에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한림대 김은지 교수는 최근 ‘복분자의 건강기능성 효과’를 주제로 열린 2012년도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 심포지엄에서 ‘복분자의 기억력 개선 효과’ 발표를 통해 “사람 세포실험과 기억력을 감퇴시킨 쥐에 대한 임상 결과, 복분자가 쥐의 기억력 개선에 뛰어난 효과를 보였고 사람 세포 활성화 성과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덕성여대 정미숙 교수는 식중독의 주요인인 ‘노로 바이러스’가 복분자 함량 6%의 주스에서 93% 사멸했고, 복분자·포도·오렌지주스 중 복분자가 식중독 억제효과가 가장 뛰어났다고 발표했다.

정 교수는 복분자 주스와 셀러드 드레싱을 급식시설에 공급하면 건강



유지는 물론 식중독 예방에도 좋다고 제안했다. 특히 복분자 주스가 신종 플루와 홍콩독감 같은 독감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정중태 고창 복분자 연구소장은 “복분자처럼 한 작물에서 많은 기능성 효과를 가진 작물이 흔치 않다”며 “복분자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특별법 국토위 통과... 연내 제정 6개 사업 일원화

새만금 개발에 탄력이 불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 사업 조직을 일원화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법이 국회의 문턱을 거의 넘었기 때문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안이 지난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회 농식품위원회 법안소위도 이날 새만금 특별법(기존법) 폐지를 의결했다.

특별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21일)와 전체 회의 의결(22일), 본회의 상정(23일) 등의 과정이 남았지만, 이면이 없는 한 순조롭게 처리

돼 연내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5일 여야 국회의원 172명의 동의로 발의돼 사흘만인 8일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됐고 닷새 뒤인 13일에는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법안에는 새만금 개발청 신설,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신설, 기반시설 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회 농식품위원회 법안소위도 이날 새만금 특별법(기존법) 폐지를 의결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6개 부처로 나뉘어 있던 사업을 신설하는 새만금 개발청으로 일원화, 전문성과 효율성이 갖춰져 새만금 내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새만금사업은 국무총리실이 총괄하고 농식품부, 국토부, 문화체

육관광부 등 6개 정부 부처가 토지용도별로 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따로 지정하는 체제다.

이 때문에 사업 내용이 상충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한 구조이며 공통 사안이 발생해도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특별회계 설치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 사업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별법안은 현재 정부재정으로 지원되는 진입도로, 용수공급, 전력선 지중화, 간선도로, 방재시설 등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비 지원으로 새만금에 조성되는 토지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국내외의 활발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주·고창·부안=강철수기자 knews@



‘사랑의 김치’ 함께 담고 나누면 더 맛있어요

김치(배추 600포기·무 100단)를 담고 있다.

정읍시 산외면사무소와 자원봉사회 주부들이 최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전달할 ‘사랑의 김치’

/정읍=박기섭기자 parkks@kwangju.co.kr

단 신

도교육청, ‘대입상담 콜센터’ 연말까지 운영

‘진학·진로가 고민이세요? 언제든지 1600-1615로 전화하세요.’ 전북도교육청은 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학·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입상담 콜센터’를 연말까지 운영한다.

대입상담 콜센터는 학생과 학

부모가 무료로 전문성을 갖춘 상담교사에게서 대입 진학·진로상담을 받게 하는 시스템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현직 교사 20명이 상담에 응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군산 철새축제 앞두고 ‘철새지킴이’ 활동

‘군산 세계 철새축제’(21~25일)를 앞두고 금강유역의 철새 보호에 나설 ‘철새지킴이’의 활동이 시작됐다.

군산시 철새조망대는 ‘일반인과 5개 학교 학생 80명으로 구성된 ‘철새지킴이’ 300명이 금강 하구둑 상·하류와 섬산면 등의 들녘에서 철새 방해요인을 제거하

는 등 철새보호 활동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철새지킴이 구성에는 특히 학생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었다”면서 “학생들이 철새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군산과 새만금 지역의 철새도래지 조성에도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순창 음용온천 약수터 12월부터 탄력 운영

순창군이 ‘2012 한국의 좋은 물’로 선정된 순창 음용온천 약수터 개방시간을 12월 1일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그동안 약수터를 24시간 개방했으나 하절기(4~10월)에는 오전 6~오후 8시, 동절기(11월부터 이듬해 3월)에는 오전 7~

오후 7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국내 온천수 중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음용 온천 약수터가 일부 이용객들의 쓰레기 야간투기 및 차량세차 등 무분별한 사용으로 자칫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부안보건소 ‘영양플러스’ 대상자 추가모집

부안군 보건소는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2013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을 연장하기로 했다.

군 보건소는 당초 지난 5월부터 9일까지 5월 동안 진행했으나,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추가 모집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부안 지역내 거주 임신·출산·수유부와 60개월 이전 영유아로, 소득기준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가구이다. /부안=강철수기자 knews@

‘1000원 목욕탕’ 51곳 만든다

순창·장수 등 시군 3년간 100억 들여

목욕탕이 없는 전북 도내 시골 마을 등에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목욕탕’이 들어선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3년간 100억원을 들여 순창군, 장수군, 남원시 등 11개 시군에 51개의 작은 목욕탕을 짓기로 했다.

도는 장애인 시설을 포함한 목욕시설을 갖추고 노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탕을

설계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해 목욕 침대, 수동 레일, 전자블록, 휠체어 등 편의 용품도 비치된다.

농협 전북지역본부도 에너지 절감형 보일러인 공기열원 히트 펌프(1곳당 3000만원)를 이들 목욕탕 33곳에 지원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작은 목욕탕이 들어서면 주민은 물론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